

社會發展과 大學教育

金 大 煥

(梨花女大 教授)

I. 社會發展의 意味

우리가 살고 있는 産業社會가 놀라운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는 事實은 우리 모두가 日常生活를 통하여 體感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그 變化와 發展은 量的面에서도 그렇거니와 質의面에서도 例外일 筈 없다.

우리는 間或 世上이 이같은 速度로 변화하다가 끝내 도달할 지점은 뭇인가를 생각할 때 정말 아찔해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컴퓨터 科學이 人間의 知識과 科學을 대신해가는 모습이든지, 遺傳工學이 人間의 生命科學에 미치게 될 놀라운 影響력을 想像할 때 우리는 未來를 辟 밝게 내다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매우 어둡게도 생각해본다. 그렇게 變化하고 發展한 年후의 世上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속에 살고 있는 人間은 또한 어떤 存在가 될 것인지 생각하면 어찌던 不安과 恐怖마저 섞인 悲觀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기도 한다.

人文·社會科學에서 人類가 희구하는 進歩나 發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미 論議자체가 진부하리 만큼 學者들 사이에 널리 試圖되어져온 바 그대로이다.

오늘날 人間의 實存이 무엇이며, 人間의 疎外가 단순히 마르크스主義者들에 의해 生産過程에서의 疎外, 配分에 있어서의 疎外로 極口 주장되어온 바이지만 現代人은 그보다도 더 크고 무

서운 疎外, 즉 科學과 技術에 의한 人間疎外는 물론 精神的인 갖가지 疎外가 더 심각한 樣相으로 露呈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生理的인 疾患보다도 心理的인 疾患이 激增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人間스스로가 物質的인 疎外보다 精神的인 疎外가 늘어가고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마도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物質的인 貧困보다 精神的인 貧困에서 연유되는 질환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오늘날 東西陣營을 막론하고 이데올로기 自體보다도 더 比重을 두고 重視하고 있는 점이 다름아니라 바로 科學과 技術의 발전을 통한 物質的인 發展을 기약하는 경쟁에 골몰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짐작되곤 함을 알 수가 있다.

II. 社會發展의 現實

社會도 하나의 有機體와 같이 生成·成長·發展·衰退를 반복하게 된다. 그러한 反復의 과정을 밟으면서 社會는 변화하고 발전하게 된다. 우선 우리의 衣·食·住 등 그 모든 면에서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比해서 便利하게 살고 있으며 安樂하게 그리고 快適하게 살아가고 있다. 말하자면 物質的인 면에서 특히 그러하다. 오늘날 人間生活을 物質的으로 풍요하고 편리하고 만들어주는데 있어 科學과 技術이 공헌한 바는 정말 크다 하겠다. 그와 같은 科

學과 技術이 곧 大學教育에 터잡아 이루어졌음도 事實이다.

그러나 人間이 분명히 科學과 技術을 통해 옛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生活의 物的條件을 개선하고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現代로 살아가는 人間이 過去에 비해 행복하며, 안전하며, 보람있게 살고 있느냐고 반문했을 때 그렇다고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이 느껴진다.

우리는 많은 疾病을 克服해가고 있으며 壽命을 延長시키는 데에도 성공을 하였다. 生活環境도 交通手段도 營養條件도 물론 改善되었다.

그러나 人間은 그러한 環境과 手段과 條件의 개선을 생활속에 누리는만큼 또 다른 한편에서는 分明히 잃어가고 있는 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켜 人間疎外라고도 하고 人間不在라고도 한다. 그런가하면 「意味喪失의 生活에 대한 苦惱」(Das Leiden am sinnlosen Leben)라고도 한다. 分明한 事實은 人間이 왜 살아야 하며 生産해야 하며 努力해야 하느냐에 대한 價値나 意味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는 點이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摘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現代人은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귀중한 精神의인 支柱를 잃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思想이라해도 좋고, 價値라해도 좋고, 宗教라해도 좋고, 理想이라해도 좋다. 오늘을 살고 있는 人間들은 그 本質의인 意味와 價値를 잃은 채 다만 기계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다. 來日도 未來도 크게 생각할 겨를없이 주어진 狀況에서 條件反射的으로만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人間에게 주어진 가장 큰 特權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不拘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때 그때 또는 그날 그날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人間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權利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둘째 : 꿈도, 思想도, 信仰도, 價値도 잃어버린 現代人은 現實主義者가 되고, 刹那主義者가 되고, 實利主義者가 되었다. 모든 知識이나 科學을 하나의 手段이나 道具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나머지 우리가 살고있는 社會는 人間味가 없는 기계적인 삭막한 것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는 人間다움도 없고 情感도 없고 서로가 依持하며, 扶助하며 살아가는 協同도 없다. 너무나 메마르고 乾操한 社會가 되고 말았다

세째 : 物質萬能의 社會가 되고 말았다. 物質과 金錢앞에는 人間이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個性도, 自尊心도, 良心도, 自我도 없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計算되고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처리된다. 거기에서 人間은 主體者로부터 客體者로 몰락하게 된다. 物質萬能主義와 拜金主義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事實을 合理主義라고 이름짓는다. 그와 같은 理性에 의한 合理主義에 反旗를 들고 나타난 反理性主義的인 人間實存의 강조가 결코 우연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네째 :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安逸과 幸福란을 極大化시키려는 나머지 家族도, 近隣도, 社會도 喪失해가고 있다. 人間이 약속한 道德, 倫理까지도 存立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다만 그것이 주는 制度나 制約이 두려울 따름이지 스스로의 良心에게 묻는 苛責에 대해서는 소홀해져가고 있다. 自己의 便宜와 安樂과 快適을 위해서는 社會的인 善이나 道德을 초월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기에 法과 같은 統制力은 더욱 강화되면서 倫理나 道德과 같은 自律性은 약화되고 만다. 거기에서 良心은 마비가 되고 倫理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우리가 모여 사는 社會가 위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발전되어 간다 할 때 우리는 과연 現代社會의 發展을 어떻게 평가해야 옳을지 의문을 제기케 된다.

그럼에도不拘하고 政治·經濟·社會·教育·文化는 實利主義 또는 合理主義라는 이름으로否定的인 屬性을 더욱 加重시켜가고 있다. 그렇다면 社會發展의 귀결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自問치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 大學教育 특히 人文·社會科學이 現代社會의 發展에 기여한 貢獻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大學教育이 결코 現實社會와 遊離된 채 존립할 수 없으며 또한 存立되어도 안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Ⅲ. 大學教育의 役割

위와 같은 論據에서 생각할 때 現代社會는 分明히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悲觀的이라는 뜻은 아니다. 어느 時代, 어느 社會에서건 문제는 있으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大學教育은 挑戰하고 있음이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

우리社會도 지금 놀라운 發展과 함께 하나의 重大한 轉換의 시점에 서있다 하겠다. 그러한 觀點에서 發展의 深化나 速度만큼 또한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음이 現實이다. 大學社會가 그와 같은 現實의인 當면과제를 外面하면서 存立할 수는 없다. 많은 경우 大學社會는 마치 現實社會와는 초연하게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지구상에 그와 같은 大學은 하나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大學社會가 「純粹」라는 이름으로 現實을 超越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경우 순수란 의미는 보다 「客觀的」이고 「科學的」이라는 뜻이지 「純粹」라고해서 現實을 외면하거나 도피하거나 무관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大學教育이 기본적으로는 普遍主義的인 價値와 眞理를 探究하는 곳이라는 데에는 異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普遍主義와 特殊主義도 그것들은 相對的인 문제이다. 우리가 現實적으로 주어진, 거의 절대적인 條件이나 屬性을 의면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個人이건, 集團이건 또는 社會 및 民族成員이건 간에 스스로가 살고 있는 現實과 歷史를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人間은 또한 불가불 歷史的·現實的 存在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自然科學은 列外的 餘地가 있지만 그러나 人文·社會科學이 現實과 歷史를 度外視하면서 純粹와 普遍主義의 論理만으로 一貫한다면 그야말로 知識을 위한 知識의 領域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60~70年代까지만 하더라도 大學教育이 外部의 文物을 受容하고 模倣하는데 급급한 때였다고 하면 80年代는 分明히 自主的인 取捨選擇을 통한 創造의 時代라해야 옳을 것 같

이 생각된다.

말하자면 지나간 30餘年의 歲月이 가히 模倣의 時代였다고 하면 지금부터 30餘年의 歲月은 自主的인 創造의 時代라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事實에 立脚한다. 그 첫째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經濟成長과 發展을 통해 우리의 自立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自立의 터전은 自主意識을 낳았으며 그와 같은 自主精神 위에서 大學의 文化가 꽃피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大學社會一般에서 學生들 스스로가 歷史와 民族에 대한 自覺, 自意識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大學은 스스로 그와 같은 氣風을 外面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收斂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우리의 正統性을 살려 北韓을 이데올로기적으로 克服하는 精神基調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는 그동안 많은 試行錯誤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大學文化가 그리고 社會文化가 과연 이대로가서 좋은지 反問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自由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의 多樣性을 강조하고 分化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 경우 多樣性이나 分化의 강조가 결코 分裂과 混同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分化와 分裂은 확실히 다르다. 서로의 個性을 가지며 그 個性속에서 獨自性과 創意性을 발휘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自由라는 이름으로 放縱을 일삼으며, 分裂을 위한 分化만을 강조한다면 그社會는 완전히 規範도, 價値도, 道德도, 秩序도 없는 조직없는 社會가 되고 말 것이다. 조직없는 社會는 無政府的인 社會이다. 그러한 곳에서 과연 個性의 發揮나 個人의 自由가 존재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根據喪失의 社會」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多樣性과 分化, 그리고 그 前提가 되는 自由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문제일 것이다. 多樣性과 分化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 지켜나가는 良識과 良心과 知性도 중요한 것이다. 그와 같은 良識과 良心과 知性을 우리는 어디에서 기대할 것인가 하고 반문할 때, 그것은 오직 大學文化 즉 大學教育에서 그 出發點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大學도 量的으로는 거의 充分하리만큼 肥大해졌다. 이미 美國을 위시한 一部나라에서의 大學膨脹이 斜陽길에 접어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大學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모될 것인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한가지 뚜렷한 事實은 우리나라 大學도 이제 量的인 膨脹에서부터 質的인 向上을 이룩해야 할 時點에 이르렀다는 點이다.

社會의 發展過程에서 人間이 예기치 못한 갖가지 副作用이 놀람도록 일고 있다. 그러한 社會問題에 대해 大學教育은 外面할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實應의이고 實利의인 면에서 그 문제에 대한 診斷과 解決의 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그와같은 문제의 素因이나 因果關係에 대해 보다 根源的인 原因分析과 相關關係를 探究해야 할 것이다. 大學이 歷史나 現實을 초월하여 歷史發展이나 現實問題解決에 초연할 수는 없을 것이다.

現代처럼 社會科學方法이 複雜多岐하게 얽히고 있는 現實을 감안할 때 어느 特定의 方法만이 唯一無二한 方法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本質的으로 어떤 社會的인 事實이나 現象을 理解하고 把握하는데 있어 視角이나 假說 그리고 方法이나 論理가 前提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그와같은 視角이나, 문제의식이나, 接近方法이나, 論理가 수반되지 않을 때 事實이나 現象에 대한 科學的이고 客觀的인 인식은 不可能할 것이며 그 結果는 本意아니게 매우 抽象的이고 觀念的인 것으로 흐르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人文社會科學은 매우 현학적인 것으로 도피하게 되며 理論을 위한 理論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머지 現實科學으로서의 役割은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昨今에 이르러 大學교육자체에 대한 自省論이 일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것은 꼭 多幸스러운 조짐이라 하겠다. 좀 더 일찍 있어야 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그같은 조짐이 大學當국의 自律的인 自覺에서 일고 있다기보다 大學生 스스로의 學問的인 욕구를 反射시켜 일고 있다는데 우리는 注目해야 할 줄 안다. 그것은 어찌보면 우리의 知識 및 文化一般이 그와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데 留意를 해야할 줄 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에 있어서 지난날과 같은 模倣文化에서부터 보다 自主的인 選擇을 하며 創造的인 文化를 再定立해야 한다는 切實한 慾求가 增加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注目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產業社會는 그동안 成長하고 發展해 왔다. 그동안은 다만 成長시키고 量化시키는데에만 급급해 왔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最小限의 경제적 自立의 時點을 얻고 보니 우리 스스로가 事實과 現象도 觀察하고 認識하고 理解함에 있어서 지난날과 같은 分析方法이나 認識論理로서는 限界가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시키지 않더라도 自覺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곧 우리의 知識體系에 있어서의 內面的인 성숙을 촉구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歸着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大學社會는 大學生 및 社會文化一般의 위와같은 慾求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大學교수 스스로가 그와 같은 學問的인 요구와 熱意를 收斂하여 自己適應을 해가는 努力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大學當局은 充分히 뒷받침할 수 있는 制度的인 改善에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大學이 결코 超然하게만 존재할 수 없으며 超然하게 하는 곳에서만 權威가 定立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끊임없는 研磨와 스스로 適應을 해가는 誠實한 努力이 있을 때 大學의 存立價値는 더 社會的인 共感을 얻게 될 것이며 그속에서 學問의 權威는 북돋아지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國家나 社會에서 產業과 學問, 產業과 知識이나 科學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까닭도 곧 大學社會가 끊임없이 변천하고 발전해가는 產業社會와 무관할 수 없음을 示唆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政府나 官의 指示나 命令에 의해서라기보다 그같은 일들이 自律的으로 선택되고 決定되고 執行케 될 때 大學의 學問的인 自由의 深幅은 훨씬 깊어지며 또한 넓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大學教育의 本質的인 再吟味가 크게 요청된다 하겠다. *